



안전문화운동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이를 위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우리사회에 안전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눈앞의 성과만 강조한 결과 "빨리빨리"란 말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말처럼 되어버렸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급증을 유발시켰다.

그 결과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 경기 화성 씨랜드 ·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등과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었다.

오늘날 고도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생활 주변과 산업현장에서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경제적 효율성 추구로 건물의 고층화, 지하화,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자동차 등 각종 문명의 이기와 사용빈도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 요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